

# 새누리 당심은 수평적 당·청관계 원했다

■ 김무성대표 승리 원인과 향후 정국

## 국정파트너 역할 재정립...對野관계도 변화

새누리당이 14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김무성 의원을 선출하면서 여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친박(친박근혜)계가 아닌 비박(비박근혜) 주자 김 의원이 승리한 원동력은 그동안 수직적으로 형성된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그동안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란 오명을 벗고 수평적 당청관계를 구축,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도부의 자율권이 커져 야당과의 소통 강화도 예상된다.

◇승패 원인=무엇보다 새누리당 내에는 지난 1년5개월간 청와대의 의중이 친박계 주류를 통해 전달되고 당이 집행하던 수직적 관계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이 많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처음으로 회동을 갖는 등 정치권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청와대의 일방 독주로는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곧 여당 입장에서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청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고 결국 이날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비박계를 뽑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 의원의 정치적 장래성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서 의원보다 앞선 것이 승리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인2표제의 선거인단 투표 70%에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해 최종

후보별 득표수를 산정한 결과, 김 의원은 5만 2706표를 얻어 3만 8293표에 그친 2위 서 의원을 압도했다.

◇향후 정국은=김 의원이 여당의 신임 당 대표가 되면서 향후 당내 역학관계와 당청관계, 대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친박계 원로인 서정원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면 친박주류의 당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었다. 이 경우 당청 관계는 수평적인 견제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로 굳어질 가능성이 컸었다. 당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지만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원래 '친박'이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비박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는 김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태호 의원이 3위로 최고위원이 됐을 뿐 아니라 친박의 홍문종 의원이 탈락하면서 당의 주류가 친박에서 비박으로 바뀌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

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청 관계가 '수평적 견제와 균형관계'로 건전하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야 관계는 김 의원이 스타일이나 과거 경력 등으로 불태 비교적 무난한 형국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의원이 의회주의자라는 측면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건전한 견제 관계를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더 야당과의 관계는 친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더욱이 양강 주자 사이에 득표를 격차가 커서 비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 등 당대표 후보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 신임 당대표 김무성은 누구

### 친박좌장·백의중군...우여곡절 끝 홀로서기 민주협 발기인 참여 30년만에 집권여당 대표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은 1951년 9월20일 부산에서 4남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해방 직후 전남방직과 신한제분을 운영했던 부친 덕분에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경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고등학교에 진학한 김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를 위해 서울시내 고교 대표들과 연합시위를 이끌기도 했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동해제강 상무와 삼동산업 대표이사직에 오르기도 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참혹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정치에 뜻을 품기 시작했다.

결국 1983년 사업체와 주시 등을 정리하고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YS를 찾아가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며 투쟁 끝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YS를 당선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그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체급을 키웠다. 그가 여의도 국회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96년 15대 총선을 통해서다. 이후 3선에 성공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첫 시련은 2008년에 찾아왔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친박근혜계 좌장으로 낙인찍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부산에서 '친박 돌풍'을 일으키며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2010년 세중시 수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면서 그의 정치인생은 다시 위기를 맞는다.

결국 친박계가 주도한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18대 총선 때처럼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백의중군'을 선택했고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해 국회의로 돌아왔다.

그는 강력한 추진력과 야당과도 통할 수 있는 친화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무성이 대장'이라는 뜻의 '무대'라는 별명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보스 정치를 꿈으로 체득한 그가 새누리당과 국내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박근혜 대통령 2기 내각 주내 출범

### 김명수·정성근 운명 오늘 결정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이번 주에 제2기 내각이 출범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논란을 빚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문제가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과정을 거치며 여권 내부에서 조차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정 두 후보자와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시한이다.

국회에서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부터 열흘 이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재송부 요청 대상에서 빠지는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가 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반대로 포함된다면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된다.

일단 박 대통령이 이날 2기 내각 출범을 예고한 것으로 봐 최근의 인사국면과 관련해 모종의 결심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청와대 분위기로 보면 박 대통령은 이르면 15일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3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주중 이들을 포함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공식 임명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중섭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정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의 악화와 정국경색 등을 우려해 막판까지 심각한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부여'싸고 첨예 대립

### 여야, 내일 처리 여부 고심

세월호 특별법안 마련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주말 내내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핵심 쟁점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목표도 했던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까지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여야 모두에

게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

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 5명씩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및 보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배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그럴 경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피해보상을 총괄하는 주체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부처 공무원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뒤탈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NAVER **단비플라워** 등려보신료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선) 302-0316-649511

2014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역: 광주·동구 남동 45번지 2층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 선발일정
  - 서류접수: 2014. 7. (월) ~ 7월 31일(목)
  - 최종선정: 2014. 8월경 발표(2014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시: 2014.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주시민가족은 향우장학회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